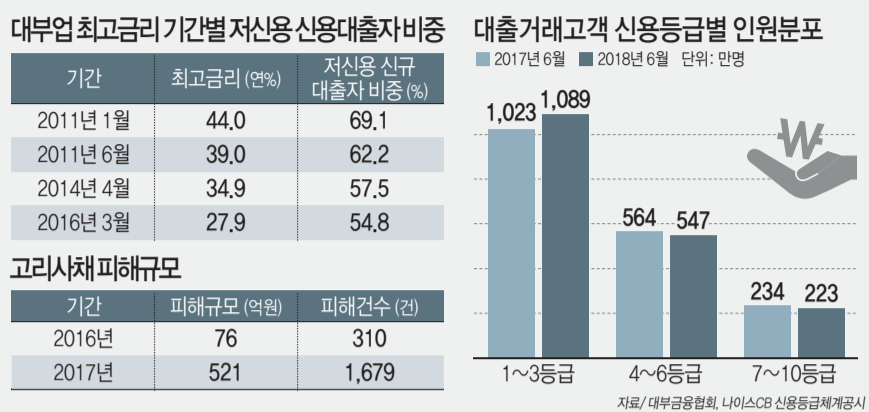


최고금리 인하 → 대출심사 강화... 벼랑 끝 '저신용자'

저신용자 불법 사채시장 내몰려
고리사채 피해 전년 比 50배 급증
“대출 대상 따라 금리 달라져야”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몸살을 앓아온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낮은 금리에 따라 대출심사가 강화돼 저신용등급 대출자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기회를 잃은 금융 소외자를 위한 대출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나이신용평가 신용등급체계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3등급의 대출 거래 고객은 총 1088만 61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2만 8730명)에 비해 65만 7459명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등급으로 불리는 7~10등급 대출거래 고객은 지난해 233만 7783명에서 올해 222만 9343명으



로 5%(10만 8440명) 가량 감소했다. 대출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대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저신용자의 대출거래가 줄어든 이유는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위험부담이 큰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줄이고 있는 것.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반인은 대

출금리의 고저를 기준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데 반해 저신용자는 대출심사 여부가 관건”이라며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의 대출심사도 강화돼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갈 곳은 불법대부업체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길거리에 간편대출이라는 불법대부업체 광고가 던져져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질 당시 대부업 이용자는 18만명 감소한 반면 불법사채 이용자 수는 33만명 증가했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고리사채 피해 건수는 1679건으로 1년 전 310건보다 50배 이상 급증한 것

로 집계됐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76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폭증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불법대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는 이자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저신용자들은 벼랑끝으로 몰릴 수 있어 정책당국이 관련정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주요국에서는 과도한 이자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제하거나 같은 상품이라도 대출 규모,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별로 이자율 상한이나 대출 가능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설정할 때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상대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건강인 할인특약·무해지환급형 활용해야

금융꿀팁 200선

종신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종신보험은 가입 이후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다. 그러나 건강인 할인 특약나 무해지환급형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으로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 등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종신보험도 연금전환 기능이 있지만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

료와 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적립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가입 목적과 재무상황을 고려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도 종신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싸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은퇴 전인 60세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더 유리하다.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비(非)흡연자나 정상혈압인 경우 통상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의 2~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에 가입하는 것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테슬라 상장폐지 우려 속 주가 ‘요동’

국내 투자자 보호는 ‘수수방관’?

국내투자자 투자금 9303만 달러

증권유관기관 시스템 정비해야

테슬라가 상장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는 대책없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유관기관이 해외 주식 권리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투자자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총 9303만 3275달러(약 1050억 8108만원)로 미국 상장사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수,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테슬라 “비상장 전환 검토 중”

지난 7일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시세보다 20% 비싼 가격으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되사 상장폐지하려 한다는 트윗에 이날 테슬라 주가는 11%나 치솟았다.

하지만 테슬라 상폐를 위해선 약 700억 달러(약 79조원)가 필요한 만큼 테슬라의 자금 조달 여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주가는 다시 이틀 연속 하락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연합뉴스

상승폭을 되돌렸다.

사흘간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면서 미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인 칼만 아이작스와 윌리엄 챔벌레인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주가를 떠온 것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증권당국은 머스크의 트윗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해외주식 상폐 대응은?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 상폐에 따른 국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유관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상장지수펀

드(ETF)의 4대 1 주식 병합을 흠트레이딩시스템(HTS)에 곧장 반영하지 않아 시장에 ‘유령주식’을 유통시켰다. A투자자의 보유물량이 665주에서 166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전량을 시장에 매도한 탓이다. 현재 물량을 시장에 매도한 투자자와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매도에 따른 책임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와 해외증권을 보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의 주식 병합,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예탁원은 해외 주식 권리 변화 내역을 단순히 증권사에 전달하고, 상당수 증권사는 이를 수기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노후자금 목적 ‘종신보험’은 NO!”

금감원 Q&A

Q 최근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 가입 이후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연금보험보다 금리는 높으니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인데,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A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에 적합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적립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비용·수수료를 차감한 만큼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니 주의하세요.

또한,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하더라도 연금보험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 몸무게/키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상품·가입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은 다르지만, 통상 납입보험료의 2~8%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재희 기자 ryusoul91@

신한카드

마케팅 플랫폼 무료제공

신한카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역량을 모아 개발한 마케팅 플랫폼 ‘신한카드 마이샵(MySHOP)’을 무료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마이샵은 빅데이터 분석과 AI에 기반

한 고객 매칭 알고리즘으로 고객이 가장 선호할 혜택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이다. 가맹점주는 마이샵과트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쿠폰발행과 이벤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이샵에서는 매장의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이용 패턴 등 복잡한 매출 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실행한 마케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마이샵은 다양한 가맹점 운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휴대전화 번호에 기반한 포인트·스탬프 적립 시스템을 탑재해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이샵을 통해 2200만 고객에게 최적화된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